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양 야 기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Need for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Yang, Ya Ki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knowledge, attitudes and needs of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ere were 258 participants who were high school students in S high school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 to October 31, 2011, and analyzed using SPSS/WIN 19.0. **Results:** The mean score for sexual knowledge was 69.78, sexual attitudes was 63.66, and needs of sex education was 75.37. Sexual knowledg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needs of sex education ($r=.17, p=.007$).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a need to develop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to increase appropriate sexual knowledge, and to encourage appropriate sexual attitudes, and to reflect needs of sex education.

Key Words: Attitude, Education, Knowledge, Sex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에게 있어서 성은 생육과 번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특히 청소년기는 성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Kho & Suk, 2011). 청소년기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성숙되고 통합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인이 되기 위한 인격 완성의 준비 시기이며, 자신들의 성역할이나 성태도, 성행동을 형성하는 시기로(Cha & Wang, 2006), 바람직하지 못한 성정보에 노출될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성개방 풍조와 성의 도구화, 상품화의 문화 속에 TV, 광고,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노골화된 성적 표현들이 범람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지식과 성인문화

에 그대로 노출되어, 신체적·심리적 변화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성지식을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성문제가 유발되고 있다(Choi, Kang, & Yeau, 2004). 청소년 74,698명을 대상으로 성 행태를 조사한 결과(Lee, Choi, Cha, Park, & Lee, 2010), 첫 성경험 연령(14.2세)은 낮아지고 5.2%의 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0.3%의 청소년이 임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경험이 증가하고, 임신, 낙태와 같은 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러 사회단체나 국가에서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다양한 노력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교육이란 청소년들에게 성장·발달에 맞는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성적 욕구를 승화시켜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Lee, 2006). 가정, 사회, 학교의 공동적인 노

주요어: 태도, 교육, 지식, 성

Corresponding author: Yang, Ya Ki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330 Eodeung-ro, Gwangsan-gu, Gwangju 506-714, Korea.
Tel: +82-62-940-5557, Fax: +82-62-940-5068, E-mail: psy@honam.ac.kr

투고일: 2012년 3월 2일 / 수정일: 2012년 4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0일

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성에 대한 공개적인 논란을 금기 시키는 사회 풍토로 인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성교육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Jeon & Lee, 2007).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9명 중 5명으로 5.1%에 불과(Choi, 2003)하여, 가정 내에서는 성을 금기시하고 폐쇄적이며 부정적인 의미로 덮어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청소년들 또한 성문제를 가정에서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서 성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갖지 않도록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1950년대부터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3년 성교육지도 자료를 발간하였고, 교육 인적자원부는 학생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특별, 재량 활동 등을 통하여 학년별 성교육 시간을 연간 10시간 내외로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6). 학교 성교육 의무화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각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성교육은 입시 위주의 지식 중심 교과목들 사이에서 그 중요성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교육 시간 자체가 많지 않고, 성 관련 내용이 도덕, 과학, 사회, 기술, 가정, 체육 등 여러 교과목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Kim & Kim, 2008). 청소년들이 고민하거나 궁금해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지극히 원론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으로 교육하여 청소년들의 정의식과 성태도, 성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나 원인적 접근의 대처방안 모색은 부재한 실정이다(Moon, 2010; Yoon, Park, & Lee, 2009).

성태도란 이성에 대해 안정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래의 경향이 정해지는 심적 경향으로 신체적 구조에 관한 느낌, 다양한 성 활동에 대한 개인적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 특히 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사회화는 어린 시절 어떤 경험과 학습을 하였느냐에 따라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는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성태도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다(Miller, Trautner, & Ruble, 2006).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 지식과 성 태도는 폰팅, 원조교제, 성폭력, 십대 임신과 출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성 문제와 성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 낙태, 성병 감염과 같은 신체적 문제와 미혼 부모, 가족의 냉대, 자이존증감의 저하, 성 정체성의 혼돈, 이성에 대한 불신, 또래집단으로부터의 따돌

림, 교육 및 사회적 기회의 상실, 경제적 손실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왜곡된 성지식과 성정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성지식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성태도와 성가치관을 갖춰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이 절실하다.

인지·정서·행동(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이론에 의하면, 인지는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며, 정서는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그 가운데 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인간의 행동 변화는 인지적 변화나 재구조화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한다(Park, 2007). 이러한 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 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조절 및 통제가 가능한 개인적·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말해준다.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수행하고, 청소년들의 성문제에 접근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들의 인지, 정서적 영역인 성지식과 성태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성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고등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유형, 성교육 교재 개발 및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등 성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Choi et al., 2004; Jeon & Lee, 2007; Kim, 2003; Kim & Yang, 2004; Moon, 2010). 또한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과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Cho & Kim, 2004; Kelly, Morgan-kidd, Champion, & Wood, 2003; Kho & Suk, 2011; Min, Lee, & Kim, 2006) 또한 시도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도와의 관계를 밝혀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의 수준과 성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고등학생의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에 대한 태도를 성에 대한 지식과 교육요구도와 관련하여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G시에 위치한 S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와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본 설문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자수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ffect size (d)=0.4, α = .05, power (1- β) = .80로 하였을 때 t-test를 위한 최소 표본 수 200명이 적절하나 탈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265명을 대상으로 초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답변을 완료하지 않은 부적절한 설문 7부를 제외하여 총 258부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설문조사의 전 과정에서 무기명을 유지하고 모든 개인적 자료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의 중단은 대상자가 결정할 수 있었으며 불성실한 답변자에게 답변을 강요하지 않았다.

3. 연구도구

1) 성지식

본 연구에서는 Park (1996)의 성지식 도구를 Park (200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생리, 임신, 성병, 성심리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결과 해석은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평균화 하였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ark (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KR (Kruder-Richardson Formula)-20 = .81이었다.

2) 성태도

본 연구에서는 Park (1996)의 도구를 Park (200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결, 성행동, 성생리, 인공유산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배점이 가능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ark (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5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4였다.

3) 성교육 요구도

본 연구에서는 Park (1996)의 도구를 Park (200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행동, 성심리, 성윤리, 성생리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배점이 가능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당시에는 Cronbach's α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4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t-test와 분산분석,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70명(65.9%), 여성이 88명(34.1%)이었다. 형제·자매 관계는 여자형제만 있는 경우가 101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외동인 경우가 14명(5.4%)으로 가장 적었다. 과거의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145명(56.2%)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이 17명(6.6%)으로 가장 적었다. 과거 성지식 획득 경로는 대중매체가 159명(61.6%), 친구가 99명(38.4%), 부모가 0명(0.0%)이었다. 음

란물 경험 빈도는 1-2번이 81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자주가 53명(20.5%)로 가장 적었다. 음란물 첫 경험 시기는 중학교 시기가 144명(55.8%)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6명(2.3%)으로 가장 적었다. 이성교제 경험은 있다가 138명(53.5%), 없다가 120명(46.5%)이었다. 성관계 경험은 있다가 12명(4.7%)이었고, 없다가 246명(95.3%)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성에 대한 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9.78±8.97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성병(20.74±3.71), 성생리(20.01±4.59), 성심리(17.42±4.14), 임신(11.62±3.21) 순이었다. 성태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66±8.04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행동(22.26±4.71), 성생

리(18.37±3.27), 순결(15.97±3.51), 인공유산(8.06±3.06) 순이었다. 성교육 요구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5.37±16.23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윤리(20.10±6.35), 성행동(18.79±4.43), 성심리(15.33±3.54), 성생리(14.14±3.63) 순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성에 대한 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은 성별($t=2.53, p=.012$), 과거 성교육 만족도($F=2.53, p=.04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68.84±9.50)보다 여성(71.59±7.57)이 성지식 정도가 높았다. 과거 성교육 만족도는 만족(74.44±6.27)에서 매우 만족인 경우(67.25±9.95)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70 (65.9)
	Female	88 (34.1)
Sibling composition	Brother only	96 (37.2)
	Sister only	101 (39.2)
	Brother and sister	47 (18.2)
	Alone	14 (5.4)
Satisfaction with past sexual education	Strongly dissatisfied	42 (16.3)
	Dissatisfied	33 (12.8)
	Neutral	145 (56.2)
	Satisfied	21 (8.1)
	Strongly satisfied	17 (6.6)
Acquirement means of sexual knowledge	Parent	0 (0.0)
	Friend	99 (38.4)
	Mass media	159 (61.6)
Frequency of exposure to pornographic material	None	62 (24.0)
	1~2 times	81 (31.5)
	1~2 times/month	62 (24.0)
	Frequently	53 (20.5)
First exposure to pornographic material	Elementary school (1~3rd grade)	16 (6.2)
	Elementary school (4~6th grade)	92 (35.7)
	Middle school	144 (55.8)
	High school	6 (2.3)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	Yes	138 (53.5)
	No	120 (46.5)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12 (4.7)
	No	246 (95.3)
Frequency of sexual intercourse (in case have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 1 time/month	6 (2.3)
	2~3 times/month	1 (0.4)
	1 time/week	0 (0.0)
	≥ 3 times/week	5 (1.9)

Table 2. Level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Needs of Sex Education for the Participants

(N=258)

Variables	M±SD	Min	Max	Range
Sexual knowledge	69.78±8.97	43.33	90.00	46.67
Sexual physiology	20.01±4.59	10.00	30.00	20.00
Pregnancy	11.62±3.21	3.33	16.67	13.34
Sexual transmitted disease	20.74±3.71	10.00	26.67	16.67
Sexual psychology	17.42±4.14	3.33	26.67	23.34
Sexual attitudes	63.66±8.04	45	86	41
Chastity	15.97±3.51	7	25	18
Sexual actions	22.26±4.71	10	35	25
Sexual physiology	18.37±3.27	5	25	20
Artificial abortion	8.06±3.06	3	15	12
Needs of sex education	75.37±16.23	20	100	80
Sexual physiology	14.14±3.63	4	20	16
Sexual actions	18.79±4.43	5	25	20
Sexual psychology	15.33±3.54	4	20	16
Sexual ethics	20.10±6.35	7	59	52

보다 성지식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는 성별 ($t=-5.25, p<.001$), 과거 성교육 만족도($F=9.34, p<.001$), 음란물 경험 빈도($F=18.76, p<.001$), 이성교제 경험($t=2.68, p=.008$), 성관계 경험($t=2.68, p=.00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65.34 ± 8.24)이 여성(60.41 ± 6.53)보다, 과거 성교육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인 경우(69.57 ± 8.31)가 보통(61.89 ± 7.01), 만족인 경우(66.38 ± 8.42)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이었다. 또한 음란물 경험 빈도는 한 달에 1~2번(62.37 ± 6.67), 자주 본다(68.75 ± 8.28)가 경험 없다(59.11 ± 5.63)보다, 이성교제 경험은 있는 경우(64.88 ± 8.66)가 없는 경우(62.26 ± 7.03)보다, 성관계 경험은 있는 경우(68.5 ± 11.52)가 없는 경우(63.42 ± 7.78)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요구도는 과거 성교육 만족도($F=3.37, p=.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성교육에 대해 매우 불만족인 경우(81.17 ± 19.56)가 보통인 경우(72.49 ± 14.17)보다 성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성에 대한 지식, 성에 대한 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의 관계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지식은 성교육 요구도($r=.166, p=.007$)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청소년들의 삶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건전한 태도, 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성문화 정화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욕구에 적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들은 성지식을 대중매체, 친구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었으며, 부모를 통한 성지식 습득은 매우 낮았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대중매체와의 빈번한 접촉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 하겠지만, 이들 매체로부터 얻는 지식의 성격이 검증된 정확한 성지식이라기보다는 흥미위주의 불확실하고 그릇된 성지식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왜곡된 성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음란매체를 통하여 음성적으로 성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친구를 통한 성지식의 습득이 많은 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 Moon, 2005)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또래 친구들과의 생활이 중요하고 이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 여겨

Table 3. Difference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Needs of Sex Educ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Needs of sex education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68.84±9.50	2.53 (.012)	60.41±6.53 ^a	-5.25 (<.001) b > a	75.22±17.46	0.22 (.826)
	Female	71.59±7.57		65.34±8.24 ^b		75.66±13.61	
Sibling composition	Brother only	68.13±9.01	1.92 (.127)	63.99±8.29	0.17 (.917)	76.52±16.83	1.19 (.314)
	Sister only	71.09±9.50		63.38±7.18		75.49±15.28	
	Brother and sister	70.00±8.22		63.34±9.33		75.04±17.45	
	Alone	70.95±5.30		64.50±8.19		67.79±13.78	
Satisfaction with past sexual education	Strong dissatisfied	70.63±9.49 ^a	2.53 (.041) d > e	69.57±8.31 ^a	9.34 (<.001) a > b > c	81.17±19.56 ^a	3.37 (.010) a > c
	Dissatisfied	71.21±7.26 ^b		62.36±7.24 ^b		75.52±15.26 ^b	
	Neutral	68.83±9.18 ^c		61.89±7.01 ^c		72.49±14.17 ^c	
	Satisfied	74.44±6.27 ^d		66.38±8.42 ^d		78.81±13.54 ^d	
	Strong satisfied	67.25±9.95 ^e		63.29±9.52 ^e		81.12±23.06 ^e	
Acquirement means of sexual knowledge	Friend	68.42±9.14	-1.94 (.054)	62.96±8.08	-1.10 (.272)	75.34±16.16	-0.02 (.982)
	Mass media	70.63±8.78		64.09±8.00		75.39±16.32	
Frequency of exposure to pornographic material	None	69.09±7.83	2.02 (.112)	59.11±5.63 ^a	18.76 (<.001) c, d > a	72.69±13.29	1.42 (.237)
	1~2 times	71.73±8.74		62.37±6.67 ^b		74.64±15.36	
	1~2 times/month	69.25±9.16		65.53±8.62 ^c		76.15±16.14	
	Frequently	68.24±10.01		68.75±8.28 ^d		78.72±20.10	
First exposure to pornographic material	Elementary school (1~3rd grade)	69.58±9.10	0.16 (.923)	62.38±6.85	0.35 (.787)	75.00±16.98	0.34 (.800)
	Elementary school (4~6th grade)	69.42±8.64		64.14±7.64		75.97±16.24	
	Middle school	70.09±9.34		63.57±8.52		75.29±16.44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	High school	68.33±5.06	-0.14 (.890)	61.83±5.15	2.68 (.008) a > b	69.17±9.33	-0.43 (.666)
	Yes	69.71±10.37		64.88±8.66 ^a		74.96±17.29	
Experiences of sexual intercourse	No	69.86±7.05	-0.14 (.890)	62.26±7.03 ^b	2.68 (.008) a > b	75.84±14.97	-0.43 (.666)
	Yes	64.72±6.43		68.5±11.52 ^a		63.00±29.49	
	No	70.03±9.01	-0.14 (.890)	63.42±7.78 ^b	2.68 (.008) a > b	75.98±15.14	-0.43 (.666)
	Yes	64.72±6.43		68.5±11.52 ^a		63.00±29.49	

Table 4.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Needs of Sex Education

(N=258)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Needs of sex education
	r (p)	r (p)	r (p)
Sexual knowledge	1		
Sexual attitudes	.122 (.051)	1	
Needs of sex education	.166 (.007)	.121 (.052)	1

진다. 부모로부터 성지식을 습득한 학생이 없는 결과는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연구결과(Kim & Moon)와도 유사하며, 부모가 성교육에 적절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대상자의 성 지식 출처가 부모님인 경우 성태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Kim과 Yang (2004)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을 위한 자녀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란물의 첫 접촉 시기는 중학생 시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Mo 등(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음란물 접촉이 중학생 시기부터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을 통하여 성지식을 얻고, 음성적인 성지식에 의해 왜곡된 성태도가 형성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많으리라 예상된다. 절반 이상의 고등학생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렇듯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일상화되고 있다면, 이성교제가 가져다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들, 이를테면 대인관계 기술, 성에 대한 건전한 인식 함양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 프로그램 내에 이성교제에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 대인관계 기술, 자기주장 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성교제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직접적인 신체적 성관계의 경험도 있는 것(4.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발표된 Lee 등(2010)의 결과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상당부분 신체적인 접촉, 나아가 성교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학생들은 성충동이 성관계의 주된 계기이고, 모르는 사람이 첫 성관계의 주요 대상임을 보고(Kim, 2003)하고 있어 남학생의 충동적인 성행동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여준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서는 남녀 청소년들이 보이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시각적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이들이 상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교육 내용에 충동적인 성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다룸으로써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고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점수는 백점 만점에 평균 69.78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rk (2001)의 연구결과와 비교시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지식 정도가 높다. 성지식 점수는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성병, 성생리, 성심리, 임신 순이었다. 이는 Park (2001)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며, 청소년 대상 성교육 교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Choi et al., 2004), 성생리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성심리, 성윤리 영역이 미진한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특히 임신과 관련된 문항 ‘성관계 시 피임을 해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46.1%), ‘정자는 자궁 내에 약 48시간 정도 산다’(35.3%) 등과 같이 피임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항에서의 지식점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이 생리적인 지식 습득에는 도움이 되나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성지식 습득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1년부터 교과과정에 공식적으로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임·낙태의 내용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만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후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Lee, 2006). 또한 Kang (2007)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성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학교의 성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교육의 내용이 올바른 피임법 및 이른 성경험에 따른 성질환 및 사후 대처 방안과 같이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성지식은 성별, 과거 성교육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과 성지식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에 관해 비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다만 성지식의 영역에 따라 남녀 간에 지식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들의 성지식이 남학생들의 성지식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Kang, 2007; Yoo &

Kang, 2010)와 일치한다. 여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월경을 시작하면서 임신과 같은 기본적인 성지식을 얻는 기회가 있으며, 임신 및 낙태의 주제로 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성 관련 지식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학생은 행위 중심으로 주로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자극적인 성지식을 얻고 있어(Kang, 2007) 이러한 성차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행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남녀가 상호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임신과 낙태의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남녀가 동등한 성지식과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성지식 점수를 보인 성생리, 임신에 관한 내용을 남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문제 관련 상담에서는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성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고등학생의 성태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3.66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김해시 소재 고등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한 Park (2001)의 63.2와 비슷한 수준이며, Choi와 Ha (2004)의 연구에서 성태도의 수준이 보통인 결과와 유사하다. 성태도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행동, 성생리, 순결, 인공유산 순이었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2001)의 연구에서 순결, 인공유산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태도는 성별, 과거 성교육 만족도, 음란물 경험 빈도, 이성교제 경험, 성관계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완고하고 보수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연구결과(Kim & Kim, 2008)와도 유사하다. 성별에 따라 성지식과 성태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고등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성교육 기관인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United States: SIECUS (2004)에서 제공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7학년에서 12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3단계 학년별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학생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Nielsen, Boelskifte, Falk, Lauszus, & Rasmussen, 2009)을 제안한 연구결과를 고려해본다면,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현행 성교육 프로그램도 성별,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반면 성지식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성에 있어 더 개방적인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많은 정보를 수용은 하지만 정보의 진위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지하여 잘못된 성지식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혼전 성관계나 원조교제와 같은 성행동에 대해 청소년이 관대한 태도를 표명한다는 결과(Choi et al., 2004)와 비교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문항 당 8점에서 22점의 점수를 보이며 ‘전혀 아니다’와 ‘그저 그렇다’의 반응을 보여 극단적인 태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문제 상담 시 상담자들은 이들의 성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방성을 가정하기보다는 이들의 성태도를 조심스럽게 파악해 볼 때 성태도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성행동 양식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직접적인 성행동으로 표현한다(Kim, 2003).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직접적인 성행동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의 집단적인 차이와 함께 우리사회의 여성의 성에 대한 비허용적인 태도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 문제를 다룰 때, 청소년의 성행동 자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지침이 되는 성태도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확립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학생의 성교육 요구도 점수는 75.37 ± 16.23 점(100점 만점)이었다. 이는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한 Park (2001)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성교육 요구도를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성행동, 성윤리, 성심리, 성생리 순이었다. 이는 서울특별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Moon (2005)의 연구결과, 성행동 영역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교육 요구도는 과거 성교육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행동에서의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Choi 등 (2004)의 연구결과, 모든 교재에서 성생리에 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루지고 있으나 성행동, 성윤리, 성심리 내용은 거의 다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85.3%의 학생들이 과거 성교육 만족도를 보통 이하라고 평가하고 있는 결과로 미뤄보아 현재 시행중인 고등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학생들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성행동 영역, 즉 피임, 임신과 출산, 성관계, 성폭

력 방지, 사랑의 의미와 책임과 같은 이른 성경험에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을 가장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장소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불만을 표현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실제로 고민하거나 궁금해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지극히 원론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으로 교육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행하기 이전에 학생들의 성교육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수업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의 선택교육 과정이 모두 적용되는 상황으로 성교육 실시 시 수 확보 방법이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교과에서도 제대로 통합하여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재량으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성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성교육을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배포된 자료 또한 성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학생들을 지도할 구체적인 수준이나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관련 교과 수업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학교 행정가의 지원, 시도 교육청의 행정,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성교육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왜곡된 성지식과 성 관련 정보를 학생들이 스스로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성지식을 제공해 주고, 바람직한 성태도와 성가치관을 갖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지식과 성태도, 성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성에 대한 지식은 성교육 요구도와 미약하지만 유의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성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관심과 성지식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Min 등(200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등학생의 성지식은 성에 대해 지니는 관심이나 흥미, 즉 교육요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기심이나 궁금증 혹은 흥미나 관심이

학습의 중요 동기임(Cho, Chae, Baek, & Lim, 2004)을 고려해 본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인정하고, 성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성지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지식과 성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지식이 높을 때 성태도가 보다 개방적이며 평등적이라 지적한 연구결과(Kelly et al., 2003; Kim & Yang, 2004)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교육은 학생들의 성적 관심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성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 대처할 수 있고, 성숙한 태도와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육 요구도를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성지식은 높은 편이었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과거 성교육 만족도, 음란물 경험 빈도, 이성교제 경험, 성관계 경험은 성태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상자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성교육 요구도간에는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의식과 성태도를 함양시키고, 왜곡된 성지식과 부정적인 성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성질환 및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적인 성태도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a, N. H., & Wang, M. J. (2006). Actual state of recognition and experience of love, sex knowledge and self-esteem in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 249-256.
- Cho, M. O., & Kim, J. I. (2004). Relationship among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nd sexual experience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 59-65.
- Cho, Y. S., Chae, J. S., Baek, E. J., & Lim, H. H. (2004). A theoretic study o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for problem-based learning (PBL)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Korean*

-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16, 1-28.
- Choi, H. S., Kang, S. J., & Yeau, S. H. (2004). Content analysis of sex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and survey on middle school students' knowledge levels and demands of sex education.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Education*, 32, 236-246.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 318-330.
- Choi, S. H. (2003). The collapsed sex culture: How will you build again. *Creativity Development Research*, 6, 205-222.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Jeon, Y. J., & Lee, H. S. (2007). The effect of sex education program on high school girl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 1251-1268. <http://dx.doi.org/10.5934/KJHE.2007.16.6.1251>
- Kang, H. Y.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Kelly, P. J., Morgan-Kidd, J., Champion, J. D., & Wood, R. (2003). Sexuality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of young women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Pediatric Nursing*, 29, 271-275.
- Kho, M. S., & Suk, J. W. (2011).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perspectives of sexual value of female students as related to sexu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7, 153-160. <http://dx.doi.org/10.4094/jkachn.2011.17.3.153>.
- Kim, H. S., & Moon, J. S. (2005). Demand of sex education on th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1, 174-183.
- Kim, H. W.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 309-328.
- Kim, J. H., & Kim, K. S. (200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 123-138.
- Kim, S. J., & Yang, S. O. (2004).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0, 350-360.
- Lee, I. S., Choi, G. Y., Cha, S. H., Park, H. Y., & Lee, J. J. (2010). A survey on the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e third survey in 2007.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53, 512-519.
- Lee, Y. R. (2006).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xual education program in high school. *Journal of Future Education*, 13, 191-265.
- Miller, C. F., Trautner, H. M., & Ruble, D. N. (2006). *The role of gender stereotypes in children's preferences and behavior*. Child psychology: A handbook of contemporary. London: Taylor & Francis Group.
- Min, H. Y., Lee, Y. M., & Kim, K. H. (2006).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xual knowledge and their sexual values and interes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 171-179.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6). *Sexual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Retrieved July 17, 2012, from <http://cutis.mest.go.kr/NTC/view.jsp?gCd=S02&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014&pnum=1&num=0&src=&srcTemp=&pageSize=10&cpage=6&no=16>
- Mo, H. S., Oh, H. E., & Cho, E. A.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behavior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experience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 210-220.
- Moon, S. H. (2010). A suggestion to educate students in the value system of pure love during the sexuality education of the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3, 277-298.
- Nielsen, J. L., Boelskifte, J., Falk, J., Lauszus, F. F., & Rasmussen, K. L. (2009). Sex education and knowledge of venereal disease among public school 9th graders. *Ugeskr Laeger*, 171, 1168-1172.
- Park, K. Y. (2007). *Rational emotive behavioral therapy*. Seoul: Hakgisa.
- Park, M. S. (2001). *A comparative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toward sex and needs about sex educ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 Park, S. J. (1996). *A study on dating, sex behavior, premarital permissiveness, sex knowledge, sex-role, and sexuality educat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United States (SIECUS). (2004).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Retrieved July 17, 2012, from <http://www2.gsu.edu/~wwwche/Sex%20ed%20class/guidelines.pdf>
- Yoo, G. S., & Kang, S. H. (2010).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sex and sexual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 101-118.
- Yoon, I. K., Park, J. Y., & Lee, S. J. (2009).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sex education &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 127-144.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Responsible sexual behavior along with desirable sexual attitudes and sex values comes from adequate sexual knowledge. There is a lack of study examining high school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need of sex education to develop tailored sex education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 **What this paper adds?**

Knowledge on proper sexual behavior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needs of sex educatio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sex education programs that provide correct knowledge on sexual behaviors to pre-judge properly widespread distorted sexual information in society are desperately needed.